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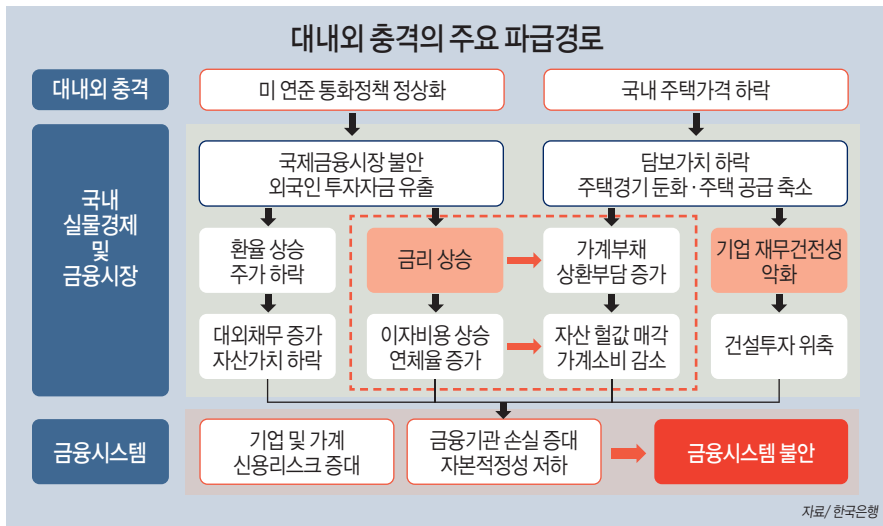
‘금리인상’에 긴장하는 증권·보험사… 채권평가損 ‘눈덩이’

증권, 지난 3~4분기도 채권 하락 보험, 금리 1%p 상승때 14조 손실 4대은행, 이자 이익만 20조 달해

“금리를 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던) 작년 12월 이후 경기가 좋아졌다고 본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신임 의장이 빠른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금리 인상 걱정이 커졌다. 이미 작년 3~4분기 채권값이 하락하면서 평가 손실을 본 증권사들은 주름살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까지 덩달아 급등할 경우 국내 금융사들의 보유 채권 가치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중국 경기 불안까지 겹치면서 증권사들은 당장 1분기 실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는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14조원 규모의 채권평가손실이 격정된다. 최악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자산건전성 악화란 암초에 직면한다면 보험·증권사는



자본 확충까지 고민해야 한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이 보유한 채권은 183조원(2017년 말 기준)이다. 총자산의 47% 규모다. 지난 2011년 102조원 대비 80%가 늘었다.

증권사들은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 투자를 늘려 왔다.

KB증권 이남석 연구원은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운용부문의 손익 변동 가능성은 실적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 다만, 2016년 이후 국내외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진 만큼 업계 공통적으로 듀레이션 축소와 선물 매도 등을 통해 헤지 포지션을 조정함에 따라 채권운용 관련 손실 리스크는 대응 가능한 범위 내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험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 외화유가증권 투자액은 90조원이다. 원화채권 투자액은 327조원 규모다. 손해보험사는 외화유가증권 투자액과 원화채권 투자액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각각 29조원, 80조원 수준이었다. 보험사가 투자한 외화유가증

권 가운데 90% 이상은 외화채권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내놓은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13조9000억원(2017년 6월 말 기준), 금리가 1.5%포인트 높아지면 보험사 채권평가손실 규모가 20조7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채권평가손실은 당장 손익에 반영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자기자본을 감소시켜 보험사들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3분기(9월 말)를 기준으로 금리가 50bp(1bp=0.01%포인트)상승하면 지급여력(RBC)비율이 32.6%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대형사 하락폭이 13.0%포인트인데 반해 중소형사와 외국계는 각각 52.6%포인트, 58.5%포인트로 더 커진다.

손해보험사들도 마찬가지다. 예보 분석 결과 손보사들은 금리가 50bp 상승하면 대형사의 경우는 28.2%포인트, 중소형사는 24.6%포인트 RBC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손보사의 3분기말 RBC 비율은 대형사가 25.7%, 중소형사가 17.1%였다. 예금보험공사는 “급격한 금리 상승은 단기적으로 매도가능채권평가

이익을 감소시켜 자본적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RBC는 보험사가 대내외적 리스크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가용자본/요구자본)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 RBC를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채권평가손실이 커지면 보험사가 당장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줄어 RBC가 떨어지게 된다.

여기에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이 시행된다면 시장금리 상승이 채권평가손실 확대와 부채평가액 축소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유 채권 중에 매도 가능 채권 비율이 높은 보험사들은 앞으로 시장 금리가 급격히 올라간다면 채권평가 손실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상이 득이다. 채권평가 손실을 이자수익이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KB국민, KEB하나, 신한, 우리 등 4대 은행의 순이자 이익은 19조9237억원에 달했다. 2016년(18조2261억원)과 비교해 1조6976억원(9.3%) 늘어난 수치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파월 한마디에... 1년간 이어 온 ‘황소장’ 마감하나

(美 연준 의장)

(강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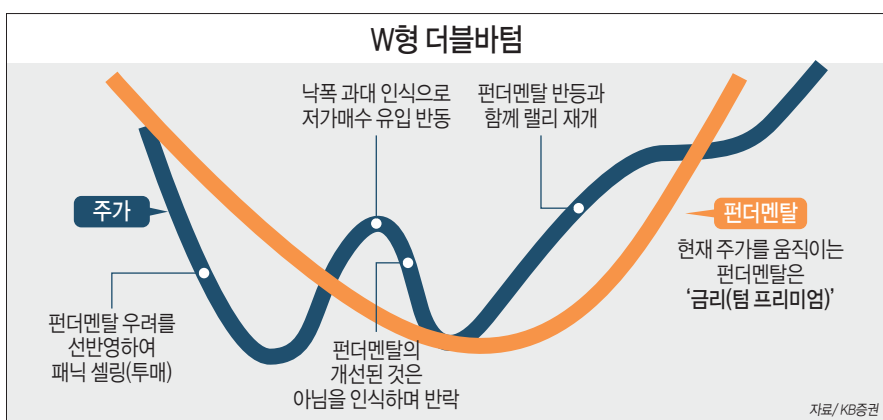
美 파월 의장 발언에 韓 증시 ‘출렁’ 다음주 ‘W형 더블바텀’ 모양 전망 “증시 일시적 동요, 곧 반등” 의견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이 또 다시 국내 증시를 흔들었다.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가파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서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국내 증시 상승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달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17% 떨어진 2427.36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역시 전일 대비 1.94% 하락한 857.06에 장을 마감했다. 원화는 달러화 대비 약 세로 돌아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071.3원)보다 11.5원 오른 1082.8원에 장을 마감했다.

국내 증시가 약세장을 연출한 데는 미 파월 의장의 발언이 단초가 됐다.

지난 달 27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는 나의 견해를 뒷받침할 지표를 봤다”며 경기에 대한 강



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물가가 기대보다 올라오지 않아 금리인상이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던 시각을 뒤엎은 매파적(동화건축 선호) 발언이었다. 파월의 강한 확신은 미국이 연내 세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키웠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전해진 후 미국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의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100% 확신했다. 또 연방기금 선물금리에 내재된 올해 네 차례 기준금리 가능성 수치도 34.4%로 1월 대비 3배 높아졌다.

미국이 오는 3월 금리를 올리게 되면 현재 1.25~1.50%인 기준금리는 최소 1.

50~1.75%로 올라 국내 기준금리(1.5%)보다 높아지는 ‘금리역전’이 빚어진다. 2007년 9월 이래 10년 7개월 만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동결과 함께 “한미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시장의 우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락장 한 번 더’

금융투자업계는 오는 9일 발표된 미국의 2월 고용지표 발표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2월 증가율의 도화선이 됐던 것도 2월 2일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

표였다. 당시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파른 금리 상승 가능성에 힘을 더했다.

이른택 KB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다음 주엔 시장의 경계감이 좀 더 커지면서 ‘W형 더블바텀’ 모양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 번 더 하락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투자 포트폴리오 내 성장성 자산의 비중을 서서히 줄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그간 주가 상승을 견인해 온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정현중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의 확장 모멘텀은 지난해에 비해 둔화되고 기업이익 증가 역시 속도 둔화가 불가피하다”며 “주식의 위험조정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포트폴리오 내 성장성 자산의 비중을 서서히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곧 반등할 것’

하지만 글로벌 경제 편더멘탈(기초체력)이 견조한 만큼 일시적 조정을 거쳐 증시가 다시 반등할 것이라 분석도 힘을 얻

고 있다. 정 연구원 역시 “이번 금리상승과 증시 조정을 하락추세의 전환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이르다”면서 “주식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에서 벗어나고 있는 투자 환경에 점차 적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높아진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해 시장은 빠르게 내성을 키우고 있다”며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촉발된 긴축 우려가 과도했다는 인식이 확산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그 자체를 경기회복의 신호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 전략은 선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호조세와 금리인상이 함께 진행되는 시기에는 경기민감 업종의 투자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서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중국 측 공급 조절과 경기 회복에 따른 전방수요 확대는 원자재 시장의 안정적 상승을 여전히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자재 가격 민감도가 높은 국내 소재 업종의 관심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금리 상승으로 즉각 반영된 물론, 자금수요의 확대도 금융 섹터 전반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융주 투자 비중을 늘릴 것을 추천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투자처 찾지 못한 기업자금 은행 대거 유입

기업들, 불안한 경기에 ‘안전’ 선택

초저금리가 지속됐지만 은행 정기예금에 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제 전망 때문에 투자보다는 안전한 은행에 돈을 맡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은행들이 예금을 늘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

권의 정기예금 잔액은 617조4699억원으로 1년 전보다 5.2%(30조4933억원) 증가했다. 증가율과 증가액 모두 2011년(12.1%, 60조8095억원) 이후 가장 컸다.

정기예금 잔액이 600조원을 넘긴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다. 예금 기간별로 보면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예금 중심으로 늘었다. 만기 1년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206조4708억원이었다. 1년 사이 14.4%

(26조334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정기예금 증가액의 85%가 1년 미만 정기예금에서 불어난 셈이다.

만기가 1년 이상~2년 미만인 정기예금(375조1454억원)은 0.7%(2조4천853억원)로 ‘썰غم’ 늘었다. 2년 이상~3년 미만인 정기예금(19조412억원)은 18.5%(2조9천727억원) 증가했다. 3년 이상 장기 예금(16조8125억원)만 5.6%(9981억원) 감소했다.

정기예금은 가계나 기업이 일정 기간에 돈을 넣어둔 뒤 약정한 이자를 받는 저축성 예금이다. 금리가 낮을수록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11월 말까지 사상 최저인 1.25%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기예금의 이 같은 증가는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기예금 증가 배경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유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낮은 금리를 활용해 회사채를 발행

했지만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다 보니 선택 투자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임시로 단기 예금과 같은 금융상품에 자금을 묶어두다 보니 예금이 불어난 모양새다.

예금 증가는 가계대출 증가와 맞닿아 있다는 설명도 있다.

주택 구입 등을 위한 대출 수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대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금리를 소폭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예금 쪽으로 자금을 유인하기도 한다.

/연합뉴스